

중금당(中金堂)

목조석가여래좌상(산스크리트어: 샤카무니)

이 훌륭한 황금상은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상입니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5 세기에 인도 북동부에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기로 맹세한 역사상의 인물입니다. 오른손은 손가락을 위로 한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두려움을 없애 준다는 의미의 시무외인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상태에서 무릎에 올려 둔 모습으로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여원인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손의 형태는 두려움을 없애고 모든 중생의 마음에 평정을 가져다준다는 석가모니의 위대한 자비심을 나타냅니다.

1811 년에 만들어진 현재의 상은 645 년에 중금당에 안치되었던 첫 번째 상으로부터 다섯 번째에 해당됩니다. 머리와 몸통, 손발을 따로 만든 뒤에 조립하는 요세기즈쿠리 양식으로 제작하여 옷칠과 금박으로 마무리한 이 상은 중금당의 본존인 동시에, 고후쿠지 절 가람 전체의 본존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조성되었지만, 과거의 양식과 치수를 충실히 재현하여 고후쿠지 절이라는 유서깊은 사원의 이름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주변 불상들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